

캠트로닉스(089010)

전자 및 화학 소재/부품으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기반 외형성장 중

기업정보(2021/12/27 기준)

대표자	김보균
설립일자	1983년 10월 17일
상장일자	2007년 01월 17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주요제품	TV PBA(PCB Board Assembly) 모듈 등

시세정보(2021/12/27 기준)

현재가	27,30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4,056억 원
발행주식수	14,858,157주
52주 최고가	34,100원
52주 최저가	22,400원
외국인지분율	4.10%
주요주주	
김보균 외 10인	28.15%
자사주	2.89%

■ 전자 및 화학 소재/부품 전문 제조, 글로벌 메이커와 거래 유지 중

캠트로닉스(이하 동사)는 전자 및 화학 소재/부품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기업으로, 2007년 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의 사업은 전자 사업(전자부품 부문, 무선충전 부문, 자율주행 부문)과 화학 사업(디스플레이 부문, 케미칼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각 사업부문별 독자적인 제품설계 및 생산/품질관리 기술을 내재화하여, 전방산업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동사는 사업부문별로 가전제품 PBA(Printed Board Assembly) 모듈, 무선충전 모듈, 디스플레이 패널 가공, 공업용 케미칼, 차량간통신(Vehicle to Everything, 이하 V2X) 모듈 등을 생산하고 있다.

■ 사업부문별 상호보완적 매출시현을 통한 외형성장 지속

동사는 전자부품 사업부문 및 케미칼 사업부문을 통해 주요 매출을 시현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케미칼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이를 무선충전 및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의 매출증대를 통해 보완하여 동사의 전체 매출액은 3개년 평균 25.8%로 증대되고 있다. 한편, 동사는 2021년 3분기 누적매출액 기준으로 전자부품 및 무선충전 사업부문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디스플레이/케미칼 사업부문의 전년 총 실적을 넘어서는 매출시현을 통해 2021년 역대 최대실적을 전망하고 있다.

■ 정부 주도 자율주행 사업의 고도화 속 중장기 성장동력 마련

전세계적으로 주요 국가 주도 하에 자율주행 사업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021년부터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 C-ITS) 본사업이 개시되어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에 C-ITS가 구축될 전망이다. 동사는 자체 개발한 V2X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증사업 레퍼런스를 지니고 있어 정부 주도 인프라 구축 정책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3,373.5	15.2	94.0	2.8	11.5	0.3	1.4	0.5	194.1	78	5,884	78.9	1.1
2019	4,034.7	19.6	263.2	6.5	165.9	4.1	18.5	6.3	196.0	1,160	6,819	15.6	2.7
2020	5,300.2	31.4	220.9	4.2	179.9	3.4	16.2	5.4	211.8	1,164	7,846	23.8	3.5

기업경쟁력

사업부문 다각화 및 고유기술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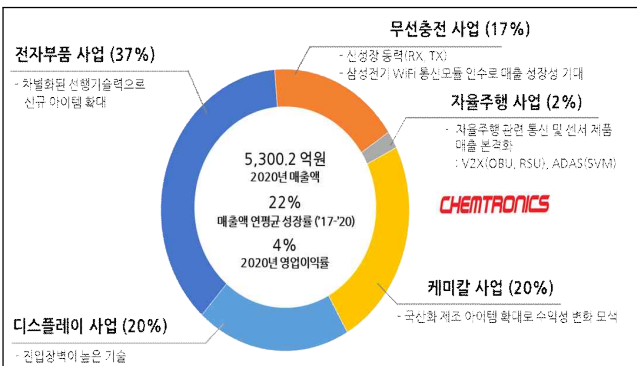
- 전자부품, 무선충전, 자율주행, 디스플레이 케미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각 부문별 담당 생산조직 운영을 통한 고유기술 내재화
- PBA 모듈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제품군 다각화
- 송/수신 무선충전 모듈 및 세트 생산기술
- 초박형 식각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가공
- 공업용 PMA 용매 제조기술
- 자율주행 환경 구축을 위한 V2X 통신모듈 설계기술

전방산업 선도기업과 공급계약 체결

- 전방기업 글로벌 선도기업을 안정적 고객사로 확보
- 전자부품 사업부문: 삼성전자, LG전자, 위닉스 등
- 무선충전 사업부문: 삼성전자 등
- 디스플레이 사업부문: 삼성디스플레이 등
- 케미칼 사업부문: LG화학, 동진세미켐 등
- 자율주행 사업부문: 정부 주도 실증사업 참여 등

사업부문 및 매출실적

동사의 2020년 매출비중



주요 매출실적

(단위: 억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3분기
전자사업			
전자부품			
무선충전	1,925.1	2,999.1	1,536.2
자율주행			
화학사업			
디스플레이	2,109.6	2,301.1	2,490.9
케미칼			
합계	4,034.7	5,300.2	4,027.1

시장경쟁력

사업부문별 시장지위

- TV PBA 모듈 분야 국내 시장점유율 1위
- 스마트폰 송신용 무선충전 국내 시장점유율: 80~90%
- 스마트폰 수신용 무선충전 국내 시장점유율: 30~40%
- 자율주행 V2X 부문 선도적 지위 확보 전략 수립

자율주행 사업부문 증장기적 육성- 글로벌 V2X 시장

연도	시장규모	이슈
2019년	1만 5천 대	■ V2X 장착 차량 연평균 277.5% 증가
2024년(E)	1,120만 대	■ 2024년 전 세계 승용차의 12% V2X 장착 예정(국내 22만 대 전망)

자율주행 및 케미칼 사업부문 성장 전망

- 정부 주도 자율주행 C-ITS 실증사업 참여 레퍼런스 다수 축적
- 2021년부터 개시되는 C-ITS 본사업 인프라 구축 입찰에 유력한 후보군
-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PMA 용매 국산화 성공
- 삼성전자, 삼성SDI 납품을 목표로 2021년 하반기 설비증설 및 양산준비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 용제 개발 등을 수행하고,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함.
- 동사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해 편의시설, 자녀 학자금 지원, 보육수당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동사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 비율은 산업 평균 대비 낮은 2.8%로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남성 대비 72.8%로 산업 평균과 유사함.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독립성을 확보한 감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교육 및 감사위원회 교육을 실시함.
- 동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28.15%로 일정 수준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주 의결권 행사 지원제도 개설,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등을 통해 준법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I. 기업현황

전자부품 및 케미칼 부문 기반사업을 통한 주요매출 시현 및 신사업 성장 지속

동사는 전자부품 및 케미칼의 기반사업을 통해 주요매출을 시현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무선충전, 자율주행 사업부문을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사업영역을 다각화하였다. 또한, 동사는 해당 사업부문별 독자적인 기술사업화 및 매출증대에 따라 외형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 기업개요 및 연혁

동사는 1983년 10월 17일에 (주)협진화학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11월에 (주)캠트로닉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7년 1월 1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본사 포함 국내 5개의 사업장 및 해외(미국, 중국, 베트남, 슬로베키아) 제조/판매 법인을 기반으로 전자부품 사업, 무선충전 사업, 자율주행 사업, 케미칼 사업,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2000년 이래 TV 등의 가전제품 PBA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전자부품 사업부문과 공업용 케미칼 유통 중심의 케미칼 사업부문을 통해 수익사업의 틀을 마련하였다. 동사는 2008년, 2012년, 2014년에 디스플레이 사업, 무선충전 사업, 자율주행 사업을 각각 개시하였다. 이후 동사는 각 사업부문별 독자적인 제품설계 및 생산/품질관리 기술을 고도화하여 해당 사업부문별 전방산업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제품을 납품하며 사업을 확장하였다. 한편, 동사는 산업용 소재/부품의 제조기술력, 시장지배력, 재무안정성, 성장잠재력 등에 대한 정량/정성적 평가를 기반으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0대 등대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1] 동사의 주요연혁



*출처: 동사 IR자료(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전방산업 글로벌 메이커 포함 국내/외 다수 파트너십 구축하여 주요매출 시현 중

동사의 주요 사업은 전자 및 화학 사업으로 나뉘며, 전자사업은 크게 전자부품 부문과 무선충전 부문으로, 화학 사업은 디스플레이 부문 및 전자용·공업용 케미칼 부문으로 구분된다. 또한, 동사는 전자/통신기술 기반 자율주행 사업을 신규 수익사업으로 육성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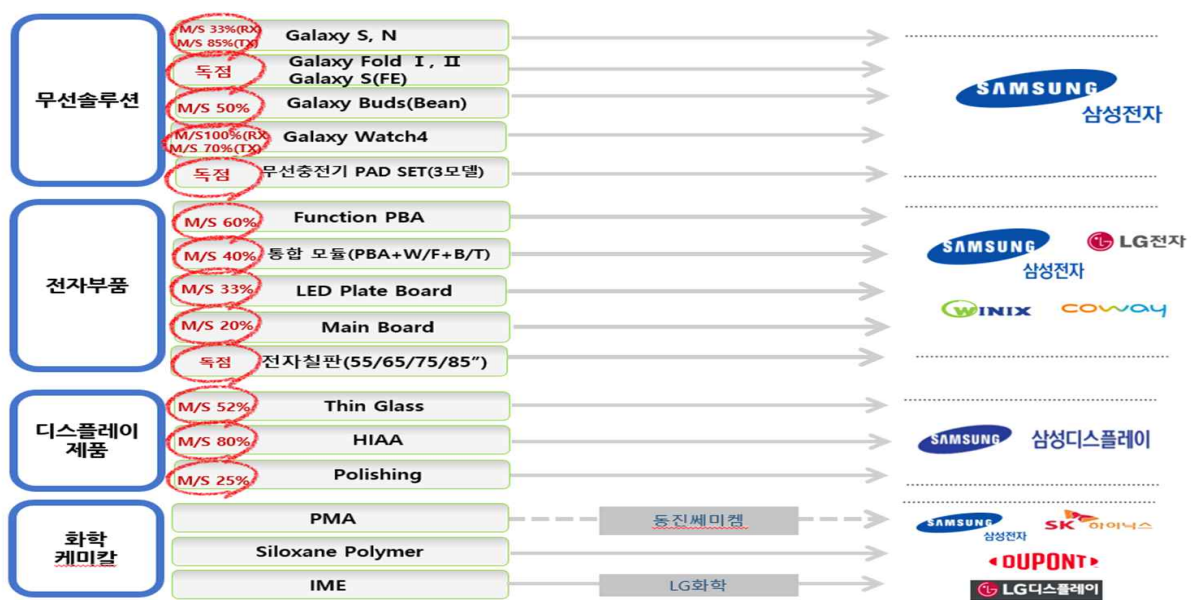
[표 1] 동사의 사업부문별 제품군

사업부문	세부부문	주요제품
전자사업	전자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채널/소리 조정 스위치, 전원장치, 각종 센서 등이 결합된 PBA 모듈 LD(Local Dimming) LED Plate Board에 도입되는 PBA 모듈 등
	무선충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및 전장에 들어가는 송/수신용 무선충전 모듈 및 세트
	자율주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주행용 V2X 통신모듈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기반 SVM(Surround View Monitor) 제품
화학사업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CD 및 Rigid OLED의 식각 공정 초박형 식각기술을 활용한 UTG(Ultra Thin Glass)
	케미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용 유기용매류 및 Glycol류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 케미칼(디스플레이 모듈용 대전방지제, 폴더블 스마트폰용 기능성 코팅액, 자체 생산 용매 PMA 등)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한편, 동사는 사업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전방산업 글로벌 메이커에 주요제품을 납품하며 주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2] 동사의 주요 매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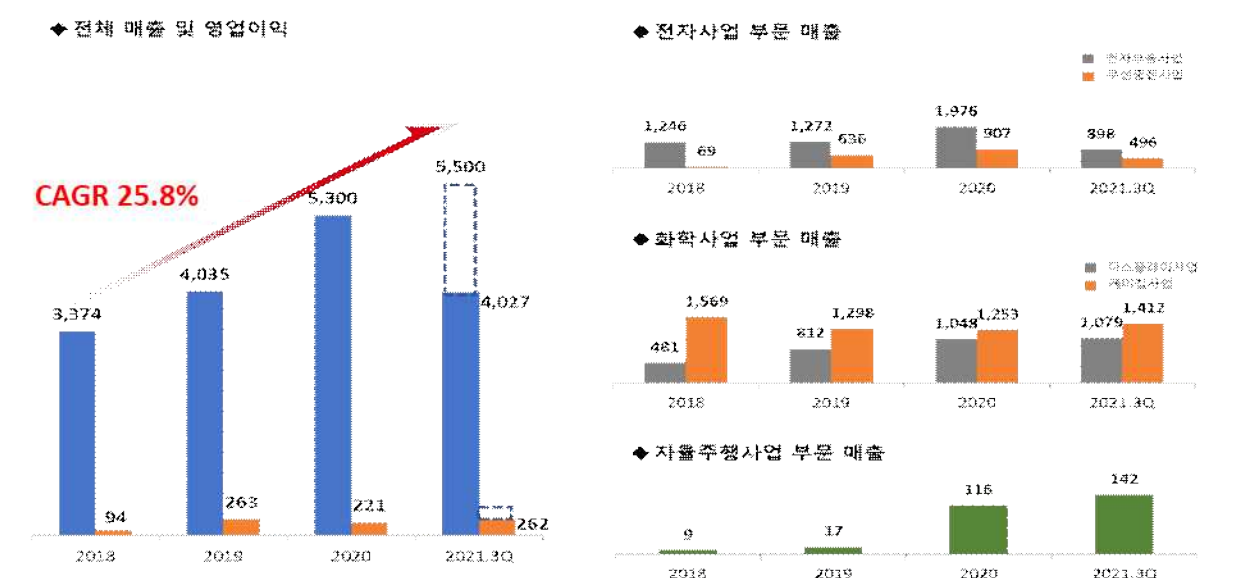
*출처: 동사 IR자료(2021.12)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의 2020년 매출액은 5,30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하였으며, 사업부문별 실적은 전자부품 37%, 케미칼 및 디스플레이 각각 20%, 무선충전 17%, 자율주행 2%로 나타났다. 2020년 전세계적인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산업전반의 투자 및 생산/공급 위축에도 불구하고, 동사 케미칼 사업부문만 3.6%(45억 원) 수준의 매출감소가 있었고, 전자부품/무선충전/디스플레이/자율주행 사업부문의 매출증대에 따라 2020년 매출실적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전자부품 사업부문은 전방산업인 가전 산업의 회복세에 따라 전년 대비 55.3%의 매출증가를 기록하였다. 또한, 무선충전 사업부문은 무선충전 도입 스마트폰 모델 증가 및 전장 무선충전 제품의 판매처 다양화를 통해 전년 대비 42.6%의 매출증대를 이루었다. 동사는 매출의 절반 정도를 해외에서 실현하고 있으며, 2020년 수출비중은 50.3%로 나타났다.

동사의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은 4,027.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였다. COVID-19의 영향에 따른 봉쇄조치로 베트남 현지 공장 가동률이 40~50%로 하락하면서, 동사 전자부품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1.2% 감소하였으나, 디스플레이/케미칼 사업부문의 매출실적이 전년도 총 매출실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대되며 전체실적은 증가하였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의 주요시장인 중국에서 스마트폰의 패널이 LCD에서 OLED로 전환되었으며, 태블릿PC/노트북 패널로 OLED의 도입이 확대되면서 패널 식각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동사는 공정라인 가동률을 최대화하여 증가된 수요에 대응하였다. 또한, 동사는 2021년 상반기에 취급하고 있는 케미칼용 원자재를 현재 대비 저가에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환경에서 동사 제품 판매가격 동반 상승으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증대를 이루었다. 한편, 동사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기반 SVM(Surround View Monitor)을 르노삼성차 QM6, SM6 등 주요 모델에 공급하는 등 자율주행 사업부문에서도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실적 (142억 원)이 전년도 총 매출(116억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림 3] 동사의 최근 3개년 매출실적

(단위: 억 원,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IR자료(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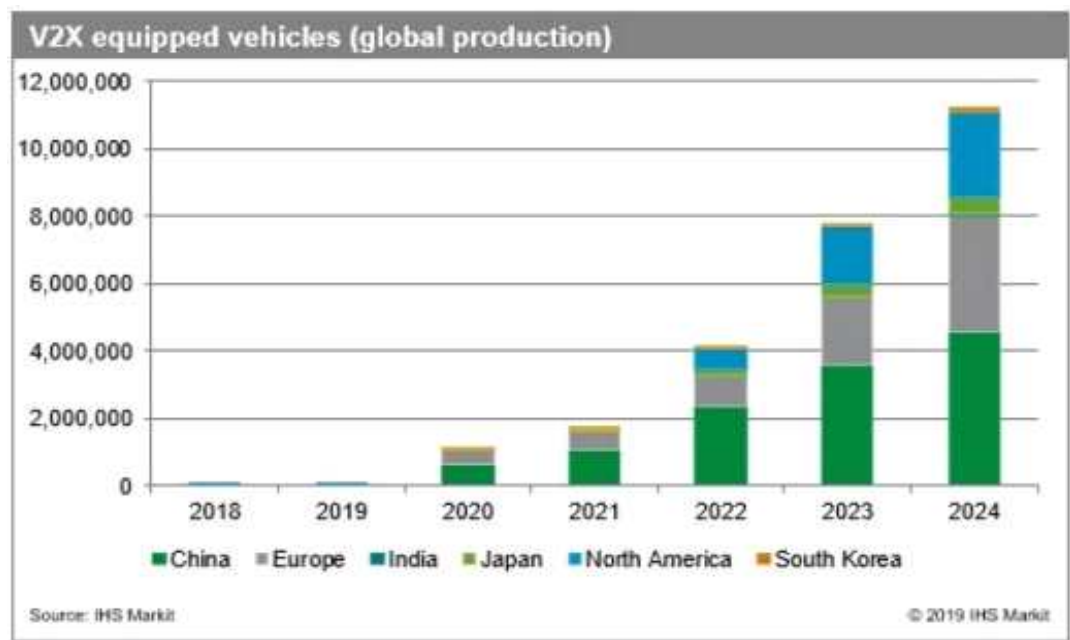
■ 자율주행 산업 고도화에 따라 지속성장 중인 V2X 시장

동사는 현재 자율주행 사업부문 외 4개 부문을 통해 주요매출을 실현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차 산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자율주행 사업부문 중심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V2X 시장의 구조, 특성, 전망 등을 고려하여 향후 동사의 성장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V2X는 레벨4 자율주행의 전제조건으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컨트롤 타워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 Market의 V2X 산업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V2X 장착 차량은 2019년 1만 5천 대에서 연평균 277.5%의 증가율로 증가하여 2024년까지 전 세계 승용차의 12%에 달하는 1,12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024년에 22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IHS Market은 V2X 시장이 결국은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중심으로 형성되겠지만, 초기에는 C-V2X (Cellular Vehicle to Everything) 차량이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두 가지 기술 모두 사용하는 복합적 접근법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4] V2X 장착 차량 출하전망

(단위: 대)



*출처: IHS Market, 2019

글로벌 V2X 시장의 핵심 칩셋과 소프트웨어는 ICT 업체들이, 하드웨어는 자동차 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부품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DSRC의 경우 공급업체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나, C-V2X는 NXP, 퀄컴(Qualcomm)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2020년 11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표준으로 이동통신 기반의 C-V2X를 택함에 따라 관련 솔루션을 공급하는 퀄컴의 입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자동차 회사인 홍치(Hongqi)의 차량에 퀄컴의 C-V2X가 적용되었고, 중국 큐텔(Quectel)의 AG15 모듈에는 이미 퀄컴의 C-V2X 기술이 들어가 있다.



V2X 관련 국내업체는 5~10곳 정도로 대부분 V2X 하드웨어(Roadside Units, 이하 RSU/On Board Unit, 이하 OBU)를 주 사업으로 하고, 핵심부품인 V2X 칩셋은 NXP, 퀄컴 등 외산제품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지난 2018년 LTE 기반 C-V2X 모듈을 출시했으며,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 등에 장착 가능한 모듈 단계까지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LG이노텍의 C-V2X 모듈 개발로 완성차 및 부품 업체들은 차세대 통신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현재 국내 V2X 시장 내 동사와 준하는 수준의 V2X 관련 기술을 확보한 업체로는 라닉스와 한컴MDS가 있다. 라닉스는 2007년 하이패스용 DSRC SoC 개발 및 상용화 이래 자율주행 분야의 핵심기술인 V2X 모뎀칩 세트를 3세대에 걸쳐 개발하면서 V2X 분야에서 국내 우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RS232 암호보안 컨트롤러를 상용화하면서 국가 공공기관 2등급 인증을 획득하였다. 한편, 한컴MDS는 임베디드 OS를 포함한 자율주행 및 ADAS, V2X로 대표되는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개발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인 융합과 스마트화를 위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해당 사업부문 매출액을 비교하면 동사가 116억 원, 라닉스가 91억 원, 한컴MDS가 198억 원으로 나타났다. 동사는 2021년부터 정부 주도 C-ITS 본사업 개시 하에 다양한 실증사업 레퍼런스를 지니고 있어 정부 주도 인프라 구축 정책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국내 V2X 제품 개발/생산 코스닥 기업

기업명	캠트로닉스	라닉스	한컴MDS
설립일	1983년 10월 (2007년 1월 코스닥 상장)	2003년 9월 (2019년 9월 코스닥 상장)	1998년 12월 (2006년 9월 코스닥 상장)
주요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부품 사업부문: 가전제품 PBA 모듈 개발 무선충전 사업부문: 스마트폰 및 전장용 무선충전 모듈/세트 자율주행 사업부문: V2X 통신모듈 및 ADAS 기반 SVM 개발 화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스플레이 사업부문: 디스플레이 패널 가공 케미칼 사업부문: 공업용 케미칼 및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 케미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V2X 모뎀칩 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DSRC 칩 MaaT 시리즈 3세대에 걸쳐 개발 보안 및 인증 솔루션 칩 <ul style="list-style-type: none"> RS232 암호보안 컨트롤러 개발 국가 공공기관 2등급 인증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베디드 SW 개발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 개발 임베디드 시스템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OS 번들 및 서비스,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 SW 등 산업자동화 및 기타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SW 개발솔루션 등 자율주행, V2X 등의 스마트 자동차용 SW 개발솔루션 등 개발
2020년 매출	※ 자율주행 사업부문 매출 기준 116억 원 (전년 대비 582.4% 증가)	※ DSRC 칩 MaaT 시리즈 매출 기준 91억 원 (전년 대비 5.1% 증가)	※ 기타 솔루션 매출 기준 198억 원 (전년 대비 36.2% 감소)

*출처: 각 사 공시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 사업부문별 제품설계 및 생산/품질관리 기술 내재화

1. 전자부품 사업부문- PBA 모듈 생산기술 기반 제품군 다각화

동사는 TV 채널/소리 조정 스위치, 전원장치, 각종 센서 등이 결합된 PBA 모듈을 양산하여 납품할 수 있는 생산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PBA 모듈과 WiFi 모듈 및 블루투스 모듈을 통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TV와 모바일 기기간 무선연결을 통해 다양한 IoT 구현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모듈을 제품화하였다.

동사는 TV PBA 모듈 생산기술 기반으로 하여, TV의 모든 구성품을 장착하는 모체로 구성품 간의 호환성이나 기능 확장 범위를 좌우하는 메인보드, TV 튜너가 내장된 미디어 수신기 세트 OCB(One Connect Board), 교육 및 회의용 광센서(IR LED) 기반의 터치패널 및 전자칠판 세트 등의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다.

2. 무선충전 사업부문- 스마트폰 및 전장용 송/수신 무선충전 모듈 및 세트 생산기술

동사는 무선충전기가 발생하는 자기장을 흡수하여 전송효율을 높이고, 무선충전기의 발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 무선 충전기용 EMC(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소재를 개발하여 자기유도 방식의 무선충전 모듈(소재와 코일) 및 세트 생산에 동소재를 적용하고 있다.

2019년 4월, 동사의 종속회사 위즈에서 삼성전기의 무선충전 및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칩 코일 사업부를 양수하여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NFC 안테나, 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안테나, 수신용 무선충전 모듈(Wireless Power Charger) 생산기술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송신용 무선충전뿐만 아니라 수신용 무선충전 사업도 영위하게 되어 모바일 분야 영역 확장이 가능해졌다. 또한, NFC+MST+무선충전 모듈과 같이 제공되는 전자파 차폐기능을 지닌 차폐용 시트 소재를 개발 및 조달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스마트폰 및 전장용 어플리케이션 외에, 가전, 가구, 미용기기, 자전거 등에도 도입가능한 무선충전 어플리케이션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3. 자율주행 사업부문- V2X 통신모듈 설계 및 ADAS 기반 SVM 제조 기술

동사는 C-ITS 구축에 도입되는 통신표준 기반 V2X 통신모듈을 설계하였다. 동사는 이동 통신에 적용되는 통신표준을 활용한 C-V2X 기반의 V2X 통신모듈도 개발 완료하여 해외 데모를 진행하고 있고, 다기능성 V2X 소프트웨어를 서울 C-ITS 실증사업에 공급하였다. 또한, 동사의 V2X 하드웨어(OBU)는 V2X 통신 외 LTE 통신, WiFi 통신, 블루투스 통신, GPS 위치 측위기능, 차량용 차량 정보수집 처리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동사는 복합통신 방식의 V2X 하드웨어(RSU)도 개발하고 있다.

동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도심내 자율주행 지원기술 관련 첨단기술·제품 확인 인증을 취득하여 동사 V2X 통신모듈의 경쟁력을 입증하였다. 또한, 동사는 V2X 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전반의 기술을 다루며 설계, 개발, 생산라인 시설을 보유해 정부 주도 C-ITS 본사업 입찰의 유력한 후보이다.

[그림 5] V2X 통신 모식도

The diagram illustrates the V2X communication system architecture and its application in a road scenario. It shows a multi-lane road with several vehicles. A central vehicle is highlighted with communication ranges indicated by concentric circles. The legend defines the communication types: V2V (Vehicle-to-Vehicle), V2I (Vehicle-to-Infrastructure), and V2N (Vehicle-to-Nomadic Devices). The application scenario shows a vehicle receiving information from a traffic light (infrastructure) and other vehicles, and also receiving information from a nearby smartphone (nomadic device). The diagram is labeled with 'V2V통신' (V2V Communication), 'V2I통신' (V2I Communication), '교통정보센터' (Traffic Information Center), '실시간-자료수집' (Real-time Data Collection), '인프라장치' (Infrastructure Device), '교통정보 제공' (Traffic Information Provision), '교통혼잡' (Traffic Congestion), '경로우회' (Route Bypass), '돌발상황' (Emergency Situation), and '광 통신망' (Optical Communication Network).

V2V통신
전방 교통 정보
차량 접근 알림
추돌경고

V2I통신
실시간 교통상황
돌발상황
교통류 제어상태

교통정보센터

실시간-자료수집

인프라장치

교통정보 제공

교통혼잡

경로우회

돌발상황

광 통신망

차내 정보표출

전방 50m
전방 100m
전방 150m
전방 200m
전방 250m
전방 300m
전방 350m
전방 400m
전방 450m
전방 500m
전방 550m
전방 600m
전방 650m
전방 700m
전방 750m
전방 800m
전방 850m
전방 900m
전방 950m
전방 1000m

범례

- V2I 통신 (Vehicle to Infrastructure)
- V2V 통신 (Vehicle to Vehicle)
- V2N 통신 (Vehicle to Nomadic Devices)

동사는 차량 전·후·좌·우에 4개의 카메라를 장착하고 수집된 이미지를 연결하여 차량 주변의 사각 지역이 없이 360°의 영상을 나타내면서 도로 운행 시 혹은 주차 시 추돌을 예방하는 ADAS 기반 SVM 센서를 개발하여 르노삼성차 주요 모델에 공급하였다. 동사의 SVM 시스템 기반 통합모듈은 차종(차량마다 카메라의 위치가 상이함)에 관계없이 화질과 영상간의 부드러운 연결성을 확보하고 자동노출 및 색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동사의 SVM 제품은 저가의 범용 ARM AP에서 구동이 가능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화질 HD급의 3D View 모드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림 6] 동사의 ADAS 기반 SVM의 구성 및 기능

SVM Composition & Function

- Camera :** HD LVDS 4ch, 190°(H)
ECU : AEC-Q100 SoC, CAN
- 3D SVM**
 - Top View
 - Front/Rear Side View
 - Parking Guidelines
- Calibration**
 - In-Line Calibration
 - Auto Calibration
-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 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 DVR (Digital Video Recorder)
 - MOD (Moving Object Detection)
 - BSD (Blind Spot Detection)

동사는 2020년 7월 8일 동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넥스비는 중국 카메라 및 ADAS 기술 전문업체 KSS-ImageNext(현 비온드아이, 현대모비스에 국내 최초로 서라운드뷰 솔루션을 공급)를 인수하여 동사의 SVM 제품에 카메라 부품 및 ADAS 솔루션 기술을 접목하였다. 비온드아이는 2021년 1월 자동차용품 판매 및 장착 업체 오토뷰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넥스비 자회사 ADAS 기술 업체 팜비전을 흡수 합병했다. 이를 통해, 동사는 캠트로닉스-넥스비-비온드아이-오토뷰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자율주행 사업부문 지배구조를 확립하였다.

4. 디스플레이 사업부문- 자체 개발 시각액 및 초박형 시각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패널 가공
 동사는 디스플레이 패널 유리식각(Glass Slimming) 시장에 초기부터 진입한 업체로, 2007년에 LCD 시각을 통하여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하여 2013년 세종사업장 제2공장 증설을 통해 Rigid OLED 시각시장에 진입하였다. 동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각액과 초박형 시각기술을 노하우로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에 도입되는 Rigid OLED의 시각가공을 수행 중이다. 또한, HIAA1(Hole in Active Area 1)을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부의 Hole부분 정밀식각(Cutting) 공정과 Glass 표면연마(Polishing)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기존 시각 기술력을 바탕으로 폴더블용 UTG(Ultra Thin Glass) 개발하고 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폴더블폰의 핵심 소재는 유리와 CPI 필름으로 양분되고 있는데, UTG는 CPI(Colorless Polyimide) 필름에 비해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디자인적 심미성이 높아, 현재 출시되고 있는 폴더블폰은 인폴딩 방식이지만 향후 아웃폴딩 방식의 폴더블폰 출시에 따라 UTG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케미칼 사업부문- PMA(Propylene Glycol Methyl Acetate) 용매 제조기술

동사는 2가 알코올류(Glycol류) 제조/유통 및 공업용 유기용매류 유통을 통해 케미칼 사업의 주요 매출을 실현하고 있으나,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우수기술연구센터(Advanced Technology Center, ATC)로 선정된 전자재료 연구소를 운영하여 유통 기반 케미칼 사업의 구조를 제조 기반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동사의 전자재료 연구소에서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컬러필터(Color Filter)에 도입되는 용매류 및 고분자 재료(Siloxane Binder), 디스플레이 모듈 정전기 대전방지용 페이스트(Paste), 폴더블폰용 고경도 기능성 코팅액, 스크린 프린팅 잉크 등의 공업용 케미칼 개발 및 양산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0년 5월 평택사업장 내 증류타워 설비투자를 완료하여 정제 기반 케미칼 제품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페인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필수공정에 사용되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가 요구되는 PMA 용매 자체 제조에 성공하여, 삼성전자, 삼성SDI 납품을 목표로 설비를 증설하여 2021년 내 양산을 시작할 전망이다.

[그림 7] SWOT 분석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전자부품 및 화학 소재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중 디스플레이, 반도체 세정용 용매 제조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 용제를 개발하고 있고,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다. 동사는 자율주행 V2X 통신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통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자원 및 에너지의 절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기술·제품 확인서를 취득하였다.

동사는 전담조직인 환경안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사의 환경안전팀에서는 환경안전에너지 인증 관리, 온실가스 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리, 사업장 일반안전관리, 화학사고 예방계획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담당 또는 유관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사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2020년 목표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제조 사업 부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과 관련하여 환경안전팀에서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전임하고 있으며, 사무직 산업안전보건교육,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또한, 동사는 직원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등의 직원 편의시설, 자녀 학자금 지원, 보육수당, 출산장려금, 상조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의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음.

또한, 동사는 KC 인증 등의 제품안전인증을 취득하여 안전관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동사는 임직원의 참여로 2014년부터 충북 금산군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8] 동사의 사회공헌활동(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출처: 동사 홈페이지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따르면 동사의 직원은 총 503명이며, 동사는 기간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고 있다. 동사의 전체 직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2.8%로 동 산업(제조업)의 평균 기간제 근로자 비율 13.3% 보다 크게 하회하고 있어 동 산업을 영위하는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동사의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은 12.1%로 동 산업(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평균 여성 근로자 비율인 13.3%를 다소 하회하고 있다. 반면,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남성 근로자 대비 72.8%로 동 산업 평균인 72.4%와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어 동사는 고용평등을 위한 일정 수준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동사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년, 천 원)

성별	전체 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1인당 연평균 급여액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442	257,896	4.5	9.3	47,092	69,276
여	61	104,310	3.3	8.5	34,265	50,172
합계	503	362,206	-	-	-	-

*출처: 고용노동부 「202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1.0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윤리경영 관련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겸임 담당자를 보유하고 있음. 동사는 윤리강령을 제정해 공개하고, 내부고발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등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나,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고 있어 사외이사

선임의 적정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동사는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운영하여 사외이사의 이사회 안건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중견기업 내부회계관리 제도 감사 대응전략에 관한 사외이사 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동사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독립성을 확보한 상근 감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내부회계 관리제도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회계 등 경영 전반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감사위원회 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8.15%로 일정 수준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3년 이내 결산배당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동사는 전자투표제 시행 등의 주주 의결권 행사 지원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



[표 4] 동사의 지배구조						(단위: 명, %)
이사회		감사		주주		
의장, 대표이사의 분리	X	회계 전문성	X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28.15	
사내/사외/기타비상무	3/1/0	특수관계인	X	소액주주 지분율	65.92	
사외이사 비율	25	내부통제 제도	O	3년 이내 배당	O	
사외이사 지원조직	O	감사 지원조직	O	의결권 지원제도	O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II. 재무분석

디스플레이 및 케미칼 사업부문의 호조로 2021년 최대 실적 전망

2021년 삼성전자 TV,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에 따라 동사의 전자사업부 매출은 3분기까지 부진을 만회하고 4분기에 상당 수준 회복될 전망이다. 또한, 화학산업 전반에서의 공급 부족 현상에 따른 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를 누리고 있어 동사의 2021년 영업실적 전망은 긍정적이다.

■ 전자부품 사업부문의 매출회복, 자율주행 사업의 매출증대 예상

동사의 전자부품 사업부문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4K, 8K QLED TV에 적용되는 PBA 모듈을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 삼성전자의 QLED TV 판매계획(총 1,000만 대 판매, 하반기 QLED TV출하량 상반기 대비 50% 이상 증대)에 기반하여 3분기까지의 매출실적 부진을 4분기에 상당 수준 만회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삼성전자 내 동사의 PBA 모듈 및 통합모듈 점유율은 각각 60%, 50%로 추정되며, COVID-19 기저효과에 따라 동사의 해외 공장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출하량 증가에 따라 동사 전자부품 사업부문의 일부 매출 회복이 예상된다.

한편, 동사는 정부 주도 C-ITS 본사업 개시에 따른 최신 진행사업인 자율주행 사업의 매출 증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및 케미칼 실적 호조를 기반으로 역대 최대 매출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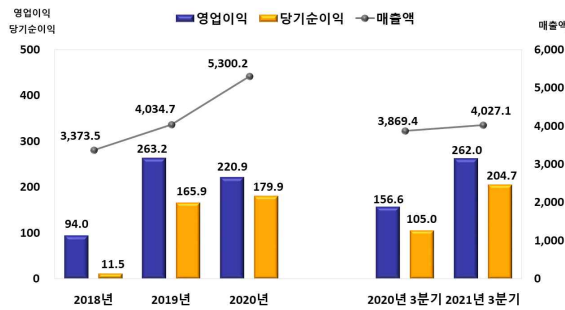
■ 2020년 수익성 다소 하락했으나, 2021년 3분기까지 회복세

동사는 2019년 4월 삼성전기의 무선충전 및 NFC 칩 코일 사업부를 양수하며 큰 폭의 매출증대를 전망하였으나, COVID-19에 따른 주요 고객사의 저조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량으로 매출증대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침에 따라 관련 비용 부담으로 2020년 수익성이 전년 대비 저하되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2%(-2.3%, YOY), 매출액순이익률은 3.4%(-0.7%, YOY)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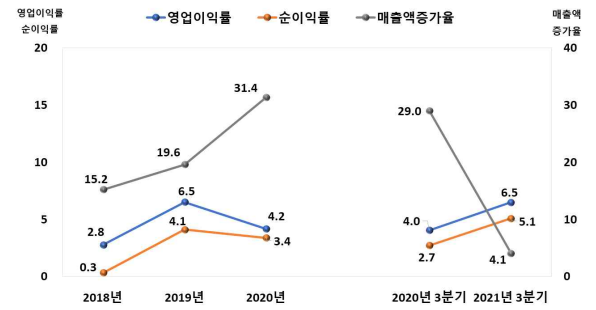
2021년 동사는 외형성장 및 생산역량 확대 등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영업이익률 6.5%, 매출액순이익률 5.1%를 기록하였고, 분기누적영업이익 262억 원(+67.3% YoY), 분기누적순이익 204.7억 원(+95.0% YoY)을 기록하며 양호한 영업 실적을 나타냈다.

[그림 9]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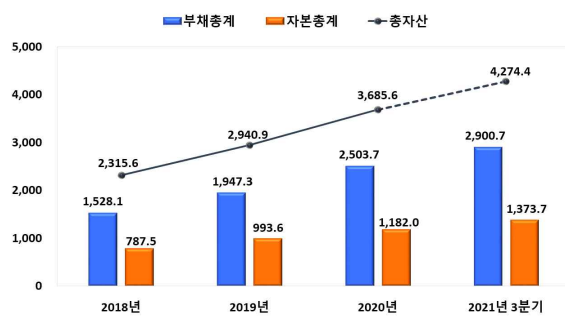
■ 부채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다소 낮은 수준의 재무안정성 지속

동사는 시설 등 유형자산 및 기술투자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필요자금을 외부 차입으로 조달하고 있어 부채부담이 다소 높은 편이며, 2020년 기말 기준 부채비율 211.8%, 자기자본비율 32.1%, 유동비율 93.6%를 기록하며 주요 안정성 지표가 다소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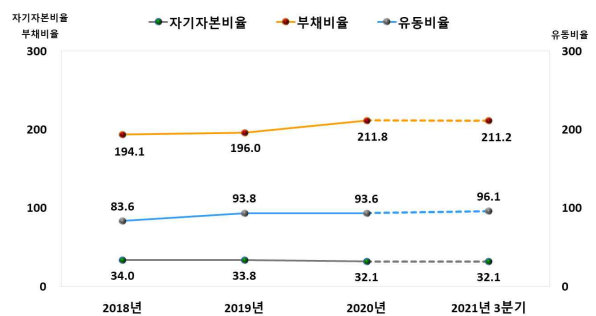
이후, 동사는 2021년 3분기 말에도 부채비율 211.2%, 자기자본비율 32.1%, 유동비율 96.1%를 기록하며, 재무구조에 큰 변동사항 없이 유사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그림 10]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자산/부채/자본 비교



자본구조의 안정성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표 5]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기준)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3분기	2021년 3분기
매출액	3,373.5	4,034.7	5,300.2	3,869.4	4,027.1
매출액증가율(%)	15.2	19.6	31.4	29.0	4.1
영업이익	94.0	263.2	220.9	156.6	262.0
영업이익률(%)	2.8	6.5	4.2	4.0	6.5
순이익	11.5	165.9	179.9	105.0	204.7
순이익률(%)	0.3	4.1	3.4	2.7	5.1
부채총계	1,528.1	1,947.3	2,503.7	2,748.7	2,900.7
자본총계	787.5	993.6	1,182.0	1,069.4	1,373.7
총자산	2,315.6	2,940.9	3,685.6	3,818.1	4,274.4
유동비율(%)	83.6	93.8	93.6	92.2	96.1
부채비율(%)	194.1	196.0	211.8	257.0	211.2
자기자본비율(%)	34.0	33.8	32.1	28.0	32.1
영업현금흐름	12.4	544.5	123.5	57.4	95.4
투자현금흐름	-83.7	-460.6	-387.1	-352.6	-316.2
재무현금흐름	59.4	138.2	391.3	469.7	486.1
기말 현금	107.7	330.5	448.9	507.2	729.0

※ 분기: 누적 실적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Ⅲ.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기반사업 안정적 매출시현 구조에 자율주행 사업 본격화가 더해 중장기적 성장 전망

동사는 케미칼 및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의 호조 및 자율주행 사업부문의 본격화를 바탕으로 2021년 최대 매출 및 영업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사는 향후 PMA 국산화 기반 케미칼 사업부문의 성장과 자율주행 사업 확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전망된다.

■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참여 기반 C-ITS향 수주 본격화 전망

국내 자율주행 산업은 2012년부터 C-ITS 도입을 위해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고, 2014년 대전시, 세종시에서 시범사업을 착수하기 시작했다. 초기 C-ITS 도입 논의 때에는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자율주행차와 연계한 경제성장 도로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투자 방향으로 2019년 10월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으로, 2027년 전국 주요도로 완전자율주행 레벨4까지 끌어올려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로 하여 2020년~2027년까지 레벨4 기술확보를 위해 핵심부품, 시스템 및 인프라 기술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규모: 1조 974억 원)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2018년 3월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으로, 20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레벨3 상용화 및 2030년 완전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C-ITS 본사업을 시작해 2024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에 V2X 하드웨어(RSU)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에 C-ITS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동사는 V2X 모듈, V2X 하드웨어(OBU, RSU), V2X 기반 스마트안테나(5.9GHz 대역 송수신) 등을 개발하여 중장기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2021년 3월 V2X 단말기에 대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C-ITS 인증을 획득하여 정부 C-ITS 본사업 진출 준비를 본격화하였다. 동사는 판교 제로시티 V2X 하드웨어(OBU) 공급, 서울시 복합통신 V2X 소프트웨어 적용 등 다양한 C-ITS 실증사업 참여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 인프라 구축 정책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C-ITS 구축을 DSRC 일종인 웨이브 방식의 본사업과 셀룰러 기반의 LTE-V2X(Long Term Evolution V2X) 실증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사는 두 방식에서 모두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는 5G-V2X까지 개발 중이다.

[그림 11] 동사의 C-ITS 실증사업 참여현황




판교 제로 시티 ○ 1차 일정 : 2018. 1 ~ 2019.12 2차 일정: 2021. 8 ~ 2022.8 ○ V2V - DSRC 통신 적용 ○ V2I / V2C - LTE 통신 적용 ○ 세계 최초 V2X 통신적용 실 도로	서울 C-ITS Project ○ 일정 : 2018.10 ~ 2020.10 ○ C-V2X & DSRC 국내 최초 Dual Active stack 적용	제주 BIS 프로젝트 ○ 일정 : 2020 .6 ~ 2022.12 ○ 제주 C-ITS System과 연동된 BIS 플랫폼에 DSRC V2X 단말기 통합	대구 C-ITS Project ○ 일정 : 2020.9 ~ 2020.11 ○ 5G V2X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성 알파 시티 및 테크노 폴리스에 OBU 및 RSU 납품
세종 국가혁신 클러스터 ○ 일정 : 2018. 10 ~ 2020.12 ○ 세종시 자율 주행 셔틀 운행 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 OBU /RSU 개발 및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세종 규제 자유특구 ○ 일정 : 2020 .6 ~ 2022.12 ○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위한 OBU/RSU 인프라 구축 ○ WAVE/4G/5G 를 통한 V2V / V2I 인프라 구축	세종 빅데이터 관제 센터 ○ 일정 : 2021.2~ 2021.7 ○ 자율주행 셔틀 운영을 위한 OBU / RSU 납품 및 설치	세종 리빙랩 ○ 일정 : 2020.11 ~ 2020.12 ○ 스마트 교차로 및 스마트 횡단 보도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 ○ RSU 납품

*출처: 동사 IR자료(2021.12)

■ PMA 국산화에 따른 케미칼 사업부문 제조 경쟁력 강화

동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가 요구되는 PMA 용매의 국산화에 따라 손해가 예상된다. 동사는 현재 삼성전자, 삼성SDI 납품을 목표로 2021년 하반기 PMA 설비를 증설하고 있는 바, 향후 양산에 성공할 시 케미칼 사업부문의 제조 부문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출성장이 전망된다.

[그림 12] 동사의 케미칼 사업부문 제품군

기존제품	공정용 케미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int, Ink, PVC 안정제, 세정제 등 산업 전분야에 사용되는 유기화학 Solvent • BC, ANONE, ECR, MCR 등 	Partnership 강화를 통한 M/S 확대
	전자용 케미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Display 산업에 사용되는 PR(Photo Resist), CF(Color Filter), Stripper용 Chemical, Thinner, Rework Solution, Etchant 등에 사용되는 유기화학 Solvent • PMA, BDG, MFG 	
신규시장	합성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lvent - 반도체/Display용 Solvent 세정제, 화장품용 용제 개발(PMA) • Polymer - OLED 격벽제용 Siloxane Polymer 합성 양산 - Display 절연체용 Siloxane Binder 합성 양산 • 전자재료- LCD/OLED Module 정전기 대전방지 Paste 개발 • 디스플레이재료 - 풀더블용 하드코팅 재료 개발 	합성제품 본격투자에 따른 소재 수익성 개선 전망

*출처: 동사 IR자료(2021.12)

■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하나금융 투자	Not Rated	—	2021. 05.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은 노트북, 태블릿 등 OLED 채택 증가에 따른 식각 수요 증가, 화학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케미칼 사업부문 실적호조, 정부주도 V2X 인프라 건설 본격화를 통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5,796억 원(+9.3%, YoY), 390억 원(+76.5%, YoY)으로 전망함. 		
하이투자 증권	Not Rated	—	2021. 01.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부품, 무선충전, 디스플레이, 케미칼, 자율주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 정책 등으로 자율주행 관련 성장성 가시화 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2024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국도에 V2X RSU 설치 계획이 있으며, 이로 인한 수혜 예상됨. 		

■ 시장 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3]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1년 12월 22일)